다음 기사를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

목욕탕의 溫故知新

2030 프리즘



목욕탕만은 IT 기기로부터 자유로운 곳이겠지 믿었다. 채팅도, 뉴스 속보도, 실시간 검색어 순위도 없는, 눈과 귀와 머리의 마지막 휴양지. 어릴 적 할머니, 엄마는 머리가 복잡하거나 새로운 다짐이 필요할 때 목욕탕에 가셨다. 그런 어른들 따라 목욕탕에 가면 심심했다. 때는 대강 밀고 밖에 나가 TV를 보려고 하면 엄마가 등을 찰싹 때렸다. "가만히 있을 줄도 알아야지!" 그곳에서는 한국인에게 그토록 어렵다는 '멍 때리기'도 가능했다.

얼마 전 목욕탕에 갔다가 잠시 '내가 워터파크에 왔나' 착각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아이가 등은 엄마에게 맡기고 방수팩에 넣은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아이는 탕에 앉아서도 쉴 새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동영상을 봤다. IT 기기로부터 자유로운 마지막 저지선이라 믿었던 목욕탕마저 뚫린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중고생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그중 스마트폰 없으면 금단 현상이 생기는 중독 위험군이 31%나 된다. 성인의 두 배 이상이다. 목욕탕에서 본 그 아이도 중독 위험군 아닐까 싶었다.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들 때문에 학교와 집 모두 전쟁이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웹툰 보는 걸 막기 위해 아침에 스마트폰을 수거해 오후에 돌려주느라 바쁘다. 집에선 이불을 뒤집어쓰고 새벽 한두 시까지 친구들과 채팅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부모가 수두룩하다.

'우리 아이, 스마트폰 멀리하게 하는 방법' 같은 전문가 강의를 들어보면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아이의 스마트폰을 빼앗기보다 '밤 9시 전까지' '밥상머리에서는 금지'처럼 가정마다 규칙을 정해놓고 시간을 제한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 알지만, 실제로는 지키기 쉽지 않다. 퇴근이 늦은 맞벌이 부부들에겐 더 어려운 일이다.

2년 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국립 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을 취재한 적이 있다. 인터넷을 못해 불안하다는 아이들보다 부모들 말에 마음이 더 아팠다. 드림마을에 있는 동안은 스마트폰을 강제로 끊겠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스마트폰 요요현상이 일어날 게 분명하다고 걱정했다. 우리 일상에는 드림마을 같은 '스마트폰 청정지역'이 없으니까.

기저귀 찬 유아도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시대이긴 하다. 하지만 제발 목욕탕에서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떠나보라고 말해 주고 싶다. 때론 우리 할머니, 엄마가 지녔던 삶의 지혜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하는 걸까.

김연주 사회정책부 기자

– 조선일보 2017년 1월 11일



이 기사를 3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이 기사의 색칠된 부분을 또박또박 베껴 써 보세요.